

< 2024년 교회표어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일 4:16)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 사도신경

- 찬 송 200장

1.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2.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3.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맘에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후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 기 도

- 성경본문 에스겔 47장 8-12절

- 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 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 10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 11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 12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 삶 나누기 당신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시대, 교회의 자화상

우리는 종종 교회를 신자가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중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모임과 봉사를 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또, 때가 되면 세례식이나 성찬식을 갖고, 흩어져서 일주일을 살다가 또 다시 주일에 모여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너무나 위축되고 쪼그라든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저 사람을 모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힘이 생기면 예배당을 새로 짓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1. 교회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곳이다.

에스겔 47장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25세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은 첫 번째 부르심 후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만, 13년 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 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6-7절)

성전에서 나온 물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물로 인해 사막 한복판에 시들시들하던 생명이 왕성해지고, 번성하

며 번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이렇게 생명을 번성하게 하며, 번영하여 충만하게 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2. 교회는, 죽은 것을 살리는 곳이다.

성전에서 나온 생명의 물은 죽은 것을 살려내고, 병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8절)

여기서 바다는 사해(死海)입니다.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핏기 잃은 인생에 생기를 가져다주고, 황무지 같은 메마른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변화되게 해주며, 창백한 삶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곳입니다.

3. 교회는, 생명을 재생산하는 곳이다.

열매를 맺어 생명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게 해 줍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12절)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주변이 살아나고, 생기가 생기고, 생명이 계속 새롭게 번영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환상은 그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황량해져

버린 세상을 어떻게 생명이 충만한 곳으로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지 그분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교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결론

교회는 그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엡1:23)

우리 새문안교회는 우리를 평범하다 못해 비루한 인생으로 만들려는 마귀의 꾀계를 뚫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며, 광화문에 생명의 번성과 번영이 차고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새문안교회로부터 “흘러내리는 물”로 한국사회가 살아나고, 온 세상에 생명이 맺히고 창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눔

1. 에스겔 47장의 환상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지요?
(2쪽 가운데 밑줄)
2.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요?
3. 구역 모임에서 내 영이 살아나고,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고, 내 간증을 듣고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된 경우가 있다면 서로 나눠보세요.
4.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